

경기도 김동연, "소상공인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고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시장경쟁력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

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 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9월 21일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개최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 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노동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 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영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경쟁력지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 통합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범거품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다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장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도심 속 오아시스 아리수 음수대에 예술을 더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수돗물 아리수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음수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아트음수대'를 독자적인 예술 작품 수준으로 제작한다는 목표이다. '아트음수대'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서울숲 등에 많이 예외적으로 아리수 음수대를 시민이 자주 찾는 지역 명소가 자 센터로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유례 도시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의 음수대에 착안해 '아트음수대'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공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아트음수대' 디자인 개발 및 설치를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과 서울시 공공미술사업팀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슬로건 'Seoul my soul' 디자인 공개에 맞춰 이를 활용한 아리수 서울 브랜드 음수대 새롭게 제작해 광화문광장 등 주요 거점에 설치할 예정이다.

'Seoul my soul' 서울 브랜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통해 새 브랜드를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고, 기존에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은 광화문광장 북쪽 지역 등에 아리수 음수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해 '아트음수대'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음수대를 휴대전화로 비추면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다양한 콘텐츠 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체험과 인공신경망 등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수돗물 먹는 문화조성과 아리수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음수대 설치 사업을 추진해, 서울 시내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 총 2,898개소에 26,577대의 음수대를 설치했다.

시는 2015년 서울시 초등학교와 유치원, 수돗물 체험·홍보관인 아리수나라 등에 캐릭터 음수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음수대 디자인 시안 공모를 추진해 설치하기도 했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설치되는 아리수 음수대가 시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지역도 서울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새롭게 디자인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2023년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경북 지적공무원의 측량기술 역량 강화로 토지 경제 분쟁 차단



경북도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 김천파크호텔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시군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토지개발과 토지가치 상승 등으로 토지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

련했다.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과 관련된 토지 경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2023년 경상북도 지적측량경진대회는 21개 시군에서 63명(팀별 3인, 상송 등으로 토지 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측량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팀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미시가 최우수팀 영예를 차지했고, 우수 경산시·김천시, 영량 예천군·고령군이 선정됐다.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구미시 토지정보과 측량팀에게는 2024년 전국 지적측량대회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지적측량검사 업무 우수사례 공유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 등 소통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도 가졌다.

박동영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지적 공무원들의 측량검사 능력을 향상시켜 토지 경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호남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성료

정보보안 역량 강화 및 최신 기술 교류

전라남도는 2023년 제4회 호남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목포대학교 남양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정보보호학회 호남지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능화된 사이버공격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원우재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국가정보원 지부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소재 지자체, 국가·공공기관, 대학, 중·고생, 정보보안 업체 등이 참여해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컨퍼런스에선 정보보안 분야 연구 논문 발표와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경진대회, 해킹캠프 등도 진행됐다.

주제 학술대회에는 총 48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김태훈(한전KDN) 씨의 '전력계통 보안을 위한 KCMVP 일호모듈과 TLS 보안 프로토콜 연계기술 구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최우수 논문(전라남도지사상)으로 선정됐다.

웹 취약점 경진대회에선 대학부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에 SPC(중부대학교 우제혁 외 2명), 중·고등부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에 '집에 가고 싶다'(순천미래과학고 윤수혁 외 2명) 등 14팀이 수상했다.

집대대·분석 경진대회에선 최우수상(한국전력사장상)에 'SottiStory'(우석대 김재환 외 2명),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에 '고집에 사할있어'(조선대 김진영 외 2명) 등 4팀이 선정됐다.

또한 호남 청소년 해킹캠프에선 최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 '집에 가고 싶다'(목포영흥고 장현수 외 1명) 등 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컨퍼런스에선 전남·광주 사이버보안 협회의가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 동향과 사이버보안 활동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재 해커 박찬일 스티리온 대표의 맞춤형 강의 학생들과 정보보안 종사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탄탄한 사이버 보안"이라며 "전남도는 지역의 정보보안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견고한 사이버 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동영/기자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숲 속 축제

2023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아리수 축제

2023.10.6(금)-7(토)
 경상북도청 천년숲

참여행사

- 안전OX퀴즈
-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
- 웹툰그리기, 보물찾기 등

공연행사

- 인형극공연 훈련시범
- 소방드럼 시연, 소방차 방수 시연
- 마술쇼, 버블쇼 등

안전체험행사

- 8개 테마 60여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 추석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

분도노인마을 찾아 위문품 전달 및 관계 종사자 격려

정한석 경북도의회 의원(철곡, 교육위원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 철곡국외관광음식문화마을에 위치한 분도노인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분도노인마을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양로시설로서 가난과 소외로 인해 외딴 땅에 자리잡고 있어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따뜻한 공동체이다.

정한석 의원은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늘 기도로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또 정한석 의원은 "명절이라고 해서 잠깐 들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만 마음으로 자주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며 어르신들이 손수 그림에 색을 입혀며 완성해나가는 모습도 곁에서 지켜보며 온정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운 이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며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서로 각별한 정을 나누자."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박대근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5일 제3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장은 분기별 점검기록표 확인이나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나머지 충전기의 점검, 고장, 수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체계는 소홀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정책들을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는 여전히 보급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점검 등 사후관리는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 기관의 관리체계가 지방시설의 관리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박 의원은 "상위 법령 등에 안전점검 등이 지자체의 사무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사무가 중복되고 보급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시정질문(서면) 통해 초등학교 교권침해의 심각성 지적

초등학교 교권침해 심각, 학부모·학생 대상 교육 등 교육적 해법모색 촉구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대구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학부모 교육과 예비 초등학생 적응 교육, 회복적 생활 교육 등을 통해 교권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적 접근을 통한 교권침해 해소방안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교사 2,390명 중 99.2%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등학교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중 교육, 예비 초등학생에 대한 초등교육원 적응 교육, 회복적 생활 교육 등을 통해 교권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적 접근을 통한 교권침해 해소방안을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외 윤 의원은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의 어린 학생들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혼란과 스트레스, 불안감 정도가 높아진다"며,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적

을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 추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배제와 낙인을 넘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 교육 기반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경남교육청 사례를 설명하고, 대구시교육청도 교권침해와 관련해 회복적 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윤근수/기자

보름달처럼 품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울릉군의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주 재원이 실현되어야 가능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원태 위원장)는 202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장에서 한국지방재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서울특별시는 지난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데서, 3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세계 혁신 등 원칙에 충실한 분권과, 나아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 재정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강성호 한국지방재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늘 연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재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그 결과물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과거 정부의 1·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일선 재무공무원이 대거 참여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 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원 한국지방재연구원실장은 "지금까지의 재정분권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지역맞춤형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참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책학회, 이현우 경기연구원,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은 지방자치 제도의 실현은 결국 재정 자주권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공명된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지방재정분권 강화 방안으로 로봇이 대체한 노동력의 수익에 대한 가칭 로보세 도입 등 신 세원의 발굴과, 수도권-지방 간 수평적 재정체제 마련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과제자주권 확대를 통한 세입 확충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두 단계를 걸친 재정분권 결과는 국가사회의 지장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주 재원 실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이라며, "갈 길이 멀지만 정부의 적극적 태세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지방재연구원에 탄탄한 이론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는 서로 견제 관계에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며, 실질적 재정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의 기본 요소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최수진 편집장: 최재은 부편집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차 '민생현장 탐방'

수원 못골시장과 지동시장 찾아 계수용품 등 구매하고 현장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2차 민생현장 탐방'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경희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희 수석대변인, 이혜린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한원찬 의원(수원6)은 "안전한 먹거리는 시장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못골시장과 지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추석 인사를 건네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 민생을 살피는 등 지역민들과 소통의 행보를 이어 나가기로 마련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

염 처리수 방류 이후 위축된 국내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수산물을 구매했다. 그때 환급받던 "오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수천 전통시장에서 추석 계수용품을 구매하며 현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이 맞물리며 민생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상진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표단 의원들은 못골시장을 둘러본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을 더 많이 애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장 홍보에 힘썼다. "전통시장에서 추석의 넉넉한 민생을 느낄 수 있으니 도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범성/기자



경기도, 추석연휴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야행 등 풍성한 한가위 행사 진행

경기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추석연휴 기간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이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에 열리는데 추석연휴기간에는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야행'을 즐길 수 있다.

지난 7시부터 9시까지 행궁에서는 야간조명을 통해 행궁의 고풍스런 건물의 아름다운 색채와 선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림자 포토존에서는 가을밤 남한산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목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컬러링북을 활용해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

험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의 기운을 담은 무예를 만나보는 '전통무예 시연' ▲전통 속에 이어난 신명나는 춤과 소리의 무형유산 '농악단 공연' ▲발라드, 퓨전곡악, 어쿠스틱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을 만나보는 '버섯킹 공연' ▲명사를 통해 인성과 사의의 폭을 넓히는 '박금수 박사님과과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각각의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담의 경우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시식하는 프로그램으로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참가티켓을 함께 구입하면 된다.

'남한산성 별시'와 '생태학교', '인사와의 만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관련 문의 및 프로그램 상세 운영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진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은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방문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가을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성/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생 회복 위한 농수산물 구입 할인 지원 추경 예산안 250억 통과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등 12명 농정해양위원 참석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김성남 위원장)는 지난 12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를 통해 도산산 농수산물 구입 시 20%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비 25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20% 할인(1인 최대 2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이미 2022년 제3차 추경을 통해 234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과 농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농수산물 구매할 수 있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에 비해 16억원 증액한 250억원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세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경기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

고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를 위해 2024년 예산 편성에도 적극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농민들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가들과 시민들 양쪽에 이로온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며,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성/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우선되어야

2023 경기도 정책토론회 주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용호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좌장을 맡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주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정책대상별 정책영역간 장벽을 허물고, 생활터 중심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돌봄공동체 전략 및 지속가능한 지역 생활 돌봄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수진 서울시 사회적고립가리지센터 센터장은 "새로운 정책 전략 방안 수립, 경기도만의 특성화 된 모델 개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광역사회 복지 센터 또는 중간지원 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사회적고립 예방 사업의 기반 마련의 필요성, 민간협력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고립가주 지원 매뉴얼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백성영 수원시출연서비스센터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상별 접근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

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종봉 경기도복지국 복지사업과 희망복지팀장은 "읍면동 중심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의 필요성 및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생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용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해 단순한 안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긴밀한 민간 협력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준경 경기도의회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중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애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윤연희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범성/기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심세한 고등학교 배정 개선으로 근거리 원칙과 학교선택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문제점에 대하여 수원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교육청, 학부모,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동 의원은 좌장을 맡아 "1949년 수원시는 5만이지만, 지금은 125만으로 수원시의 발전에 걸맞는 고등학교 배정 개선에 대한 논의의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동일 새우관(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은 발표를 통하여 내년도 2024학년 학교배정 방안이 대하여 설명했다. 구체적인 1단계에서 수원시 전 지역의 5개 회합 고등학교를 신청하여 배정기준 원칙에 따라 학교 정원의 50%까지 배정되고, 배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속한 구역(1구역과 2구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순위를 신청하여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병직 운영위원장(의외중학교)은 "이외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상당 수가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수면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은정 운영위원장(다산중학교)은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일반고 진학 아이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배려를 요청했다.

관악회 운영위원장(영신중학교)은 권선구 14개 중학교 중 7개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배정안도 또는 일각에서 제안된 세분화된 배정안도 장단점의 문제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수원지역 고교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구역 또는 4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무리없이 때까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동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영통신도시 개발 이후 지속된 인구 증가로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거리 배정'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수



렴하여 심세한 고등학교 배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근거리 원칙과 학교선택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은 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비선호 학교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학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홍준기 국민의힘 수원

정 당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영 의원, 수원시의회 이재형 의원, 권기호 의원이 참석하여, 고등학교 배정 주제에 대한 열린 호응과 관심을 표현했다.

김범성/기자



수원의 맛과 멋 알리는 '2023 수원음식문화박람회'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 기간(10월 7~9일)에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2023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부설 주차장에서 열린다.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먹거리 판매가 중심이 되는 기존 음식축제 방식에서 벗어나 빈칸이 참여하고,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다. 전국요리경연대회·국제자매도시조리사 초청음식전 등이 열리고, 전문 음식관(새빛식당), 식품판매홍보관, 체험관, 전시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10월 7일 열리는 전국요리경연대회에는 창작 라이브 경연 20팀, 푸드 카빙 라이브 경연에 10팀이 참여한다. 국제자매도시조리사 초청 음식전(10월 7~9일)에는 독일·베트남·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10명의 조리사가 참여해 '국제푸드쇼'를 한다. 국제자매도시 요리사와 함께 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 시식 행사도 준비했다.

'새빛식당'에는 한식·양식·중식·제과 등 4개 분야에서 총 8개 음식점이 참여한다. 업소별로 2개 품목을 판매하고,

음식 가격은 한 품목은 8000원 이하, 또 다른 품목은 1만 5000원 이하이다. 참여 업체는 공모로 선정했다.

체험관에서는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제과협회), 떡매치기·인절미 자르기(농산음식품입가공협회), 수원약과 만들기(조리사협회) 등을 할 수 있고, 전시홍보관은 음식문화거리관, 음식문화역사관, 상수도홍보관, 뮤티페스타 홍보관 등으로 채워진다.

수원시는 음식문화박람회 참여업체를 공모로 선정해 관련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부스 운영에 관한 모든 과정(기획·홍보 마케팅 등)에 업체들이 참여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수원시 소재 업소를 우선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수원의 맛과 멋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박람회장을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주택건설 시공사와 '철근배근 시 동영상 촬영 확대' 협약

대우건설·두산건설 등 7곳과 22일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는 22일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홍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시공사가 관내에서 착공 후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내용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 시 지상 5개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 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홍보를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을 및 중량충격을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장애공감도시 선정... 간부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산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증하는 장애공감도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장애공감도시 선정 사업은 경기시장협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장애·비장애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산시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장애 감수성이 높은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2일 경기도 경기시장협회장으로부터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인증패 전달식 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해 간부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어머니와 발달장애인인 자녀가 함께 직접 강사로 나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됐다.

김기호 회장은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 추진 덕분에 올바른 장애감수성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편견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공감도시가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 받는 안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화성시, '놀자 그리자 동탄호수에서' 행사 성황리에 개최



화성시가 23일 '2023 놀자 그리자 동탄호수에서' 행사를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화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시민에 호평을 받은 동탄호수공원 투나분수 그리기 대회를 확대 개최한 것으로, 그림그리기 대회 외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동탄호수공원에 사는 곤충 그리기'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상설 곤충 전시장, 추석맞이

이 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특별 마술쇼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버블 맥주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향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그래, 이맛이야!" 고양이, '밤의 힘' 되새긴 고양이와지쌀 광고 공개

가와지쌀 재배지 법곶동에서 오천년 역사 되새려

고양특례시가 고양 가와지쌀의 역사를 담은 브랜드 광고를 지난 22일 고양시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시는 광고 공개와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밋을 이벤트를 운영해 참가자에게 가와지쌀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브랜드 광고는 두 연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남자 주인공이 새로운 '밋'을 찾아가는 여정을 익살스럽게 풀어냈다. 광고는 3.1운동, 영주대첩 등 한반도 오천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 고전마다 지역을 발휘했던 '가와지쌀'의 힘을 강조했다.

특히,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고양'의 '맛'에서 고양특례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80년대 유행했던 텔레비전 광고에서 차용한 '그래, 이맛이야!'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광고 영상은 실제 가와지쌀 재배지인 고양시 법곶동에서 촬영되어 가와지쌀의 5천년 역사를 생생하게 담았다. 또한 공태현, 김취열 배우와 '조선로고 녹두전'에서 활약한 송재은 배우

가 출연해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시는 광고 공개와 함께 인스타그램 밋을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와지쌀 브랜드 광고를 시청하고 응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랜포를 한 가와지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특화농산물인 가와지쌀을 새로운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낸 이번 광고를 통해 가와지쌀의 역사성과 상품적 가치가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가와지쌀에 대한 인식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고를 30초의 짧은 영상으로 재구성한 '밋'편과 '역사'편 광고를 11월까지 텔레비전과 옥외광고로 공개할 예정이다. 가와지쌀 브랜드 광고 전체 영상은 고양시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상인분들이 희망을 품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물가등락을 파악하고, 침체한 소비 심리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라며 "상권별 특화 사업 확대 등 상인분들이 희망을 품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란5일장 주차장 확충은 정상 추진 중이며 지평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모란민속5일장이 전국 최대의 문화명소로 자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과일 등을 구매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권했다. 이날 방문에 이어 27일에는 중앙공설시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미금현대벤처빌딩을 방문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부천시, 건강주간 맞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1주간) 건강주간으로 정하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주간에는 ▲온라인 건강도시 캠페인 스탬프 투어 ▲권역별 건강강좌 및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제12회 북사골 건강관리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천시 5개 의·약 단체와 의료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건강도시 스탬프투어 참여 방법은 올댓스탬프 앱에 가입한 후 상동호수공원을 방문해 건강도시 스탬프를 북사골 건강관리마당 홍보관에 제시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10월 10일에는 부천아트센터에서 임산부를 위한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11일에는 부천시세종병원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의 건강강좌가, 12일에는 오정 어울마당 대강당에서 치매 예방 교육 등의 건강강좌가 진행된다.

윤용민/기자



광주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검정제 실시

광주시는 오는 11월 예정인 공공비축미 매입에 '품종 검정제'가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5% 표본을 선정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벼 품종 검정(DNA 분석)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검정 결과 매입 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5년 동안 제외된다. 단, 파종·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광주시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추경과 상량이며 2024년도에는 매입품종이 참미, 상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 운영비 지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기대

인천광역시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인천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천 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

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을 통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유지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장은 "공영 주차장만이 아닌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인천시와 인천기독교 총연합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 관내 교회 10개소가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남/기자

즐거움과 배움, 소통이 공존한

'제28회 용인시민의 날' 폐막...용인시민 약 4만여명 방문

지역 내 단체와 관광명소 민속촌·에버랜드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시민에게 큰 호응 얻어

110만 용인특례시민을 위한 '제28회 용인시민의 날' 폐막이 23, 24일 이틀 동안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고 24일 오후 막을 내렸다.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용인미르스타 디옴에서 '2023 용인시민 페스타'와 '사이버과학축제', '용인청년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고, 축제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는 약 4만명의 시민이 용인미르스타 디옴을 찾아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겼다고 추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많이 즐기신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더 많은 시민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에 이어 24일 진행된 여러 축제에도 많은 인파가 모였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사이버과학축제'의 체험 행사와 국가대표인 이승훈의 토크쇼는 이날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 관련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롤렉 돌리기' 행



사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시민들이 긴 줄을 설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시가 준비한 2500여개 기념품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가 진행된 이틀 동안 용인특례시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600여명이 증가한 것에 힘입어, 용인특례시 공식 유튜브 '용인시 조아용TV'는

2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됐다.

'제28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시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고, 용인의 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23일엔 에버랜드가 '해피 뽕스기빙 파티' 공연을, 한국민속촌이 전통 가무악으로 구성된 '풍물 한가락'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축제의 수준을 높였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엔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누를리자 아왕 알림 시장 일행과 국내 자매도시인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 경남 사천시 이상훈 부시장, 충북 단양군 이해록 부군수와 조성룡 군의회의장, 제주시 오호선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걸그룹 'DMZ'는 댄스공연을 통해 용인시민의 날을 축하했다.

24일 오후에는 '제24회 용인시민가요제 본선' 무대가 시민의 날 마지막을 장식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용인시지부가 주최한 가요제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5명의 시민이 실력을 뽐냈고, 인기가수 이윤과 류기진, 향기, 이동백 등이 출연했다.

본선에선 임재범의 '비상'을 노래한 최수진씨가 대상, 정미애의 '즐거움 돌아가는 길'을 부른 문정옥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현우씨와 김승환씨는 각각 은상과 동상을 받았고, 특별상에는 강진진씨, 인기상은 이진우씨가 차지했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평생학습 3차 포럼 성료...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논의의 장 열어

광명시는 지난 22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시작, 비형식교육 : 암·함·살'을 주제로 평생학습 3차 포럼을 시민과 유관부서 및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20회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포럼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교육 의제 중 하나인 '비형식 교육'을 '한평생 이어지는 지속적 학습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열었다. 아울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 건설을 위해 다채로운 방식과 내용이 피어나고 있는 지역 내 실천적 평생학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의 기조 강연 '비형식 교육 : 모두를 위

한 교육을 위하여'를 시작으로 시민 패널 4인이 참여한 '삶의 정원에서 배움'을 꽃피우다 : 개인의 배움에 공동체 회복까지' 등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학습과 실천의 기회를 탐색하고 배움을 삶에 적용해 온 경험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한 교육 내용 및 기획 단계에서의 속고 과정, 삶의 영역에서의 학습 실천 등 광명지역 활동가이자 전문가들의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생한 사례를 나누었다.

특히 장애인 대상 학습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지원을 통해 학습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장애인 인식 강사 활동으로 장애인이 평생학습을 통해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사례를 나누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올해 광명시는 급격히 디지털화



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의식에서 시작하여,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주제로 '공간의 확장', '영역의 확장', '형식의 확장' 등 다양한 방식의 학습 확장에 대한 주요 의제를 3차례에 걸쳐 탐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재의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탐색하는 평생학습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전남도, 공공비축미 14만4천톤 매입 전국 최대

산물벼 3만2천톤 11월 말·포대벼 11만2천톤 12월 말까지

전라남도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 14만 4천 톤으로 전국 최대로 물량을 확보,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14만 4천 톤 중 3만 2천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미국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11만 2천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일정은 산물벼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 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공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매입 종료 이후 민간 검정기관에 품종검정(DNA 검사)해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

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비축미 친환경 벼의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한다. 농약이 검출된 물량은 농가 회수 또는 일반벼로 전환 매입을 하되, 친환경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에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매입에 노력되는 농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추가 매입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 매입량 확대를 통한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2개 이상 배치하고, 지자체·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박종배/기자



k-푸드 세계화호에 탑승한 남원 특산물 김부각과 추어탕 미국수출개시

김부각 26,000개, 추어탕 8,000개 미국 대형 유통매장 납품 수출



국내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남원 향토 특산물 김부각과 추어탕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부산항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르

게 됐다. 남원시의 김부각 및 추어탕 미국 수출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해외 특산물 수출 업체

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로, 지난 22일부터 부산항을 통해 수출이 시작됐다.

이번 수출품은 오가네창부각(대표 오미선)의 김부각과 다시마부각 26,000개와 남원 미꾸리추어탕(대표 김병섭) 8,000개로 미국 내 H마트를 통해 소비자를 식탁에 올리게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인지도도를 높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생산업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농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한류 열풍 확산에 따른 K-푸드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또 다른 대형유통 매장 및 베트남 등남아메리카 수출을 계획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특산물 수출은 국가마다 다른 수출 검역 기준과 까다로운 위생검역 과정을 통과해야 하

는 난관이 많은 일로 이번 김부각과 추어탕 미국 수출은 행정과 기업체가 원팀으로 일해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이다”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우리 남원 수출에 관심이 많은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홍콩으로 말기와 복숭아(그린함도) 및 포도(캠벨, 사인머스켓), 계란을 홍콩으로 수출한 데 이어 이번 김부각과 추어탕 미국 수출로 농특산물 수출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산 농가 및 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해외 유통매장 판촉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승/기자

함평군,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 10% 할인 판매 개시

관광객을 위한 특별 혜택 ‘눈길’

전남 함평군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을 10% 할인해 사전 판매한다.

사전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에 접속 후, 티켓링크 메인화면 검색창에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검색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판매기간은 오는 9월 25

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또한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구매하면 인터넷과 같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나 인터넷 판매기간과 달리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판매한다.

함평군민은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김영진/기자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순천만에서 가을을 만끽하세요



여름의 황금해변이 백사장이라면 가을의 황금해변은 갈대밭으로 수놓은 순천만습지이다. 황금빛 갈대가 바람에 넘실거리며 절경을 이룬 모습은 볼수록 벗꽃보다 아름답다.

순천만은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만나 섞이는 습지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드넓은 갯벌과 서울 여의도 약 2배 면적의 갈대군락에 서식하는 철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기에는 순천만습지 생태체험선 선상투어가 제격이다. 순천만 대대선착장에서 S자 궤도를 지나 다시 대대선착장으로 되돌아오는 선상투어는 왕복 6km 구간을 35분 정도 운행한다.

특히 올해는 순천만습지 해안가에 순천만 어싱길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순천만 어싱길은 순천만습지에서 별량면 장산마을까지 총 3코스(람사르길, 세계유산길, 갯벌길) 4.5km로 구성된 맨발코스로 순천만 갯벌과 아름다운 갈대밭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뛰노는 순천만습지는 10월 매주 토요일 국악, 양악, 대중음악 등 공연을 준비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갈대밭을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갈대밭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아름다운 생태경관을 마음속에 담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나주 농산물 가공업체, 국내 대형 유통사와 손잡는다

나주시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서 ‘입점 결정’ 37건, ‘적극 검토’ 40건 쾌거

나주 지역 우수 농산물 가공품 생산 업체들이 국내 대형 유통사에 대거 입점하게 되면서 판로 확보 및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나주시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에서 총 157건의 상담 중 37건이 대형 유통사에 입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입점 ‘적극 검토’도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운영 나주시장은 “이번 품평상담회의 최종 목표는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들에게 피루로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30개 업체가 60여 개의 대체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는 GS홈쇼핑,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우체국쇼핑, 11번가, 티몬, Y-MART 등 13개 국내 대형 유통사의 상품기획자(MD) 20명과 참석했다. 우수 농식품 입점 지원 및 상품 문제점, 개선점 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업체당 5회 이상 1:1 맞춤형 유통 전문 상담과 상품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가공업체 관계자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품들을 정성껏 만들었지만 정작 판매처를 찾기 힘들었다”며 “국내 대표 유통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돼 특히 기쁘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품평상담회의 최종 목표는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들에게 피루로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30개 업체가 60여 개의 대체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한편, 나주시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민선 8기 중점 공약으로 추진 중이며 농식품 가공업체의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판로 확보 등에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일반인 대상 여객선 반값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

10월 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완도군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10월 4일부터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민을 제외한 일반인으로 청소년과 청소년 여서도, 노화, 소안, 보필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여객선 이용료의 반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공유자,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등 지원 대상은 제외하며 우선 적용 후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비는 1억 3백만 원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여서도와 노화, 소안, 보필도 방문객 29,148명에

게 여객선 이용료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했고, 기존에 지원했던 4개 섬에서 청산도를 추가하여 장기간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완도읍과 청산도, 보필도 등에서 ‘정성 완도를 섬 여행’이 진행돼 해당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여객선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여객선 이용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사와 협의

할 지도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월/기자



경북도『제28회 옥외광고 디자인 대상전』개최

공모전 출품작 332점 중 입상작 31점(도지사상 15점) 선정

경북도는 지난 22일 디자인이 우수한 옥외광고 창작 작품을 발굴·보급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옥외광고 거리 조성을 위해 『제28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대상전』 시상식을 포함 평생학습원에서 개최했다.

경북도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에 맞는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8번째를 맞이했다.

경북도 옥외광고협회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공모분야 창작광고물 3개 분야(성인부, 대학생부, 초·중·고 학생부)와 설치지 광고물 1개 분야(사진작품) 등 총 4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

창작광고물 부문은 성인부 9점(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5)과 대학생부 6점(금상 2, 은상 2, 동상 3), 학생부 12점(금상 2, 은상 4, 동상 6), 기설치광고물 성인부 4점(금상 1, 은상 1, 동상 2) 등 총 31점의 입상작을 선정했으며, 그

중 경주 백변광고사(구분출)의 '캘리서당 글의정원'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입상작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 출품해 경북 광고인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지난해 구미 명인광고기획 김명장 씨의 작품 '아이디어'의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올해 또 한 번의 쾌거를 기대하고 있다.

관대수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시미관 및 공공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어 우수한 창작 작품의 응모는 물론,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 디자인대전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선진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높여 복지 체감도 Up!



영덕군은 거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보에 취약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20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반기별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영덕자원봉사센터의 '구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남정면 구거리 마을회관에서 진행했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과정에서 위기 상황으로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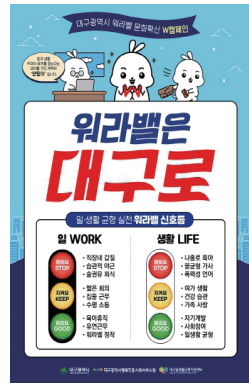
접하는 가구에 대해 추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권순학 주민복지과장은 "다양한 기관·단체와 힘을 합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군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 속에서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화/기자

일·생활균형! '위라벨은 대구로!' 위라벨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위라벨은 대구로' 캠페인, 지역기업과 시민들의 '위라벨 신호등 지키기'에 도전할 챌린저 모집 중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센터, 청년이 살고 싶은 위라벨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라벨 문화 확산 캠페인 '위라벨은 대구로!'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개최한 '여성UP엑스포'에서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민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오피니언 리더로 '위라벨 신호등 지키기' 도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가 위라벨 문화 정착을 위한 챌린저 캠페인에 참여해 예정이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는 기업 실천 캠페인으로 직장에서 '위라벨 신호등 지키기'에 도전할 직장인 챌린저를 모집한다. 대구지역 가족친화기업 직원이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의 직장인들이 일·생활 균형 실천 수칙 '위라벨 신호등 지키기'를 직장에 전파하고, 위라벨(W)을 형성하면 사원을 할애해 기업과 개인의 SNS 게시물을 팔로우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위라벨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지원 컨설팅, 교육, 문화 체험, 고충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해 왔다.

정부가 인정한 대구지역 가족친화기업은 올해 200개사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일·생활균형 문화 실천을 통해 위라벨이 정착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위라벨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과장은 "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이 살기 좋은 위라벨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위라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기업도 위라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바라며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위라벨 문화 확산 캠페인 '위라벨은 대구로'의 '위라벨 신호등 지키기' 참여는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총사업비 2,875억

국가산업단지 최초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

구미시 제1국가산업단지가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노후산업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수시지정 절차를 거쳐 22일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적률 초과이익의 25%) 면제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국가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산업단지 내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선정된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 규모는 2,905,800㎡, 사업비는 2,875억 원이며, 사업지역은 구미시로 제조업체가 입주된 단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발전정기성 단계 조성은 목표로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활성화구역에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혁신지구사업에 도시산업 육성사업(삼정제조 복합지구 등) 그린네트워크 조성(문화공원 및 광장조성) 계획을 추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1국가산단의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2015년 활성화구역 제도 신설 도전자였던 구미시 '최초'의 활성화 구역 후보지 지정으로 의미가 크다. 2016년부터 2020 이후 국가산업단지 '최초'의 활성화 구역 후보지 지정으로 산단 1곳(서대구 산단)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 중인 5곳(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을 포함해 총 6개 산단이 지정됐다. 금번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해 산간지역 대안지역 산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김동현/기자

울진군, 스마트강소농 농산물 브랜드 개발 교육 성료

울진염파, 꽃과원, 노루마루 등 12개 농가브랜드 개발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강소농 농산물 브랜드 개발 교육 대상자 14명을 대상으로 농가 브랜드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농가주자 직접 브랜드 개발에 참여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너디자인센터의 노시우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노대표는 전문 브랜드 컨설턴트로 전국

자진컨설팅 및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이다.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디자인은 농가 맞춤형 디자인으로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허청 상표출원도 진행했다. 농가 브랜드 울진염파, 꽃과원 그리고 노루마루 등이 개발됐다.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브랜드, 디자인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나만의 브랜드를

가져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순봉목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만족스러운 브랜드 디자인 결과물을 얻어 강소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강소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문화/기자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문가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

9.25. 13:00 부산연구원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늘(25일) 오후 1시 부산연구원 본관 회의실에서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문가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오는 2024년 6월 부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 법을 통해 부산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태양광, 풍력, 수소

원료전지, 수소소염병합 등)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는 2024년 6월 부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이 확정될 계획이다.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문가 워킹그룹은 지난 7월 부산형 분산에너지 전담(TF)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

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전문가 워킹그룹을 추가로 운영해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과 특화지역 선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기업육성, 산업육성, 특화지역 지정 등 3개분과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학, 기업, 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산지역 외 전문가도 대폭 위원으로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립할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인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남부발전 등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으로 에너지전환 유도,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에너지거래 시장 조성,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 등 4개 분야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정상 신속 추진 지원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유도하고, 송배전망 요금제 도입, 특화지역 내 전력판매 허용, 지능형 수요관리 등 분산에너지 분야 스마트전환 지원, 연구개발 신규기회 추진을 통한 기업육성 및 산업육성, 이미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향만, 산업단지 등에 유형, 규모별 특화지역 선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덕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마련을 통해 친환경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유도하고, 특화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이곳을 중심으로 에너지 주력지역, 데이터센터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라며 "관련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부 관련 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금천구, 추석 맞아 결식아동 1,350명에게 '동네방네 행복카드' 지급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음식점 2,200여 곳에서 1인당 3만 원 사용 가능

금천구는 추석을 맞아 결식아동을 위해 3만 원 내,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인 '동네방네 행복카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동네방네 행복카드'는 명절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선불카드를 말한다. 명절 인사카드도 함께 제공되며, 금천구 내 일반음식점 2,2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는 2021년 추석예를 시작으로 매년 명절(설, 추석)에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동네방네 행복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 추석 명절 기준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부식을 지원받는 아동 또는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아동 등 총 1,350여 명이다.

동네방네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된 기존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신규자 또는 분실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동네방네 행복카드를 받은 아동들은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3만 원 한도로, 금천구 내 일반음식점 2,200여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식당은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반납 처리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네방네 행복카드를 받은 아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환신/기자



올해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밝고 큰 보름달처럼 건강도 행복도 모두 차오르는 추석 연휴 되세요.

송파구,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모두의 마음건강 축제' 개최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송파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 열려

송파구는 구민의 건강한 정신을 위하여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마음건강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구는 다가오는 정신건강의 날과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1부 기념식과 2부 생명존중 뮤지컬 순으로 진행되며, '정신건강 체험부스'가 구민회관 로비에 별도로 운영된다.

행사에 앞서, 자רח한 관객들을 위하여 특별 음악과 연극공연이 열린다. 회장을 노래하는 회기별 가수의 노래선율과 더불어, 알코올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모노드라마가 상연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 등 정신건강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표창 수여가 있다. 정신장애인과 관련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송파어우리기 합창단'의 뜻깊은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공연이 2부에 상연되는 뮤지컬은 자

살예방을 주제로 한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다.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가 담긴 5개 이야기를 유니버셜 형식으로 엮어낸 뮤지컬은 진한 웃음과 감동으로 90여 분간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한편, '정신건강 체험부스'는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관내 6개 기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우울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카페, OX퀴즈, 알코올폐지 체험과 알코올검진 등 구민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편견을 해소하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뮤지컬을 관람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소 300명 한정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화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로 스스로뿐 주변 사람들의 마음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어우리기 합창단'의 뜻깊은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10.10.(화) 10:00~14:00 송파구민회관 3층

모두의 마음건강 축제

1부 기념식
2부 뮤지컬 관람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부대행사 정신건강 체험부스

신청기간 2023년 9월 18일(수) ~ 10월 6일(금)
신청방법 QR코드 접속하여 신청소 접속

주최 송파구민회관
문의 02-2147-5030
참관번호 2023-098

서초구, 스마트 기술 적용한 주민 아이디어로 도시 해법 길 묻다!

10개팀 제작한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 선보여, 작품 설명, 시상식 등 진행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내외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은 서초구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시제품 전시가 열린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26일, '서초 AIoT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 컨퍼런스'를 더케이호텔(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메이커톤'은 '메이킹(ma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정해진 기간 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시제품을 만드는 대회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구정 문제를 해결할 혁신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10개팀의 시제품을 선보인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선정된 참여팀들은 2개월간 전문 강사의 멘토링을 거쳐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AI, 빅데이터, SW기술 등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휴먼동작 인식 및 안내 장치 ▲IoT를 이용한 양재천 스마트 공원 조성 ▲QR스마트 자원봉사 서비스 ▲AI 챗봇 서비스 ▲주차장 빛을 수위 위험감지 ▲교통체중 완화 시위 집회 전용 스마트 신호등 ▲포드홀(도로파임) 자

동감지 알고리즘 ▲폭우로 인한 위험맨홀 경보 시스템 ▲길거리 자율주행 쓰레기통 로봇 ▲노래와 빛을 주는 가로등이다.

오후 3시 20분부터 방문객들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10개 시제품을 관람하며, 참가자들의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 ▲우수상(상금 70만원) ▲장려상(상금 50만원) 등 상위 3개 팀을 발표해 상장을 수여한다. 시상식 후 선정된 3개 팀은 행사장에서 시제품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시상식에 앞서 오후 2시 40분부터는 서초구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현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사업단장이 '산업혁신을 위한 AI의 역할과 AI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후 에스테브 알미랄(Estevé Almirall) 스페인 예사데대학교수가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향후 구는 10개의 시제품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실제 구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구와 송실대의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서초구와 송실대에서 공동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문

제 해결과 서초구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복지·안전·교통 등 생활 곳곳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2023 SMART CITY CONFERENCE

서초 AIoT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 컨퍼런스

2023. 9. 26 (화) 14:30~16:30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동

제27회 봉화송이 한약우 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진다.

2023.9.21(목)~9.24(일)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봉화군 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충북도,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위한 18개 기관 협력

충북대·한국교통대 글로벌대학 네트워크 구축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는 25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을 위해 18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산·학·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환 충북도지사, 고창성 충북대학교총장, 윤순조 한국교통대총장을 비롯하여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의왕시, 네매스, 심텍, 에코프로, 천보, 대응제작, 삼진제약,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철도기술원 관련 관계자도 함께했다.

충북지역 양 대학의 글로벌대학 본 지정 추진이지만, 한국교통대의 철도특화 캠퍼스가 경기도 의왕시에 있어 양 대학의 본지정 추진을 위해, 의왕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함께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 내외 기관들이 적극 지원·협력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글로벌대학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산·학·연 인적자원 교류 및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인재 취·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지역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이다.

김병환 충북도지사는 “글로벌대학 선정은 대학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거대 종합대학이 통합되면, 청주·충주·오송·오창·증평·의왕 캠퍼스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6일 본지정 실행 계획서 제출 후, 양 대학의 최종선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남도, 우주항공 비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유럽에 이어 일본과 교류협력 강화

김병규 경제부지사, 25일~27일 일본 아이치현과 도쿄 방문

경남도는 일본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아이치현과의 교류협력 및 일본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한 경남대표단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 우주항공비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대표단의 유럽 순방에 이어, 이번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아이치현과의 우주항공산업 교류협력, 일본 국립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시설 방문, '에어 오마르 나고야 2023'경남도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오후, 첫 일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미쓰이소코(MITSUI-SOKO)의 도쿄 본사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미쓰이소코 코리아(MITSUI-SOKO KOREA) 주식회사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14년 6월부터 부산항 신항 옹동배후단지에서 복합물류센터 건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내에 신규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날인 26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

지사는 도쿄에서 일본 아이치현과의 교류협력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 현지에서 지원해 준 우덕민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를 접견하고, 재일본 동경 경상남도 대표회(회장 손영태) 임원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아이치현 나고야시로 이동하여 ▲후쿠모토 신이치로(古本 伸一郎) 아이치현 부지사와 접견하여 우리 도와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일본 국립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비행연구거점 방문, ▲경남도-아이치현 우주항공산업, 창원지원 중심 상호협력 교류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아이치현 우주항공산업, 창원지원 중심 상호협력 교류협약(MOU) 체결식은 김병규 경제부지사와 오무라 히타카(大村 秀孝) 아이치현 지사가 양 지역을 대표하여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양 지역 간의 항공우주산업과 창업 지원 연계 협력과 민간교류 촉진 등 중요 합의가 포함된다.

마지막 일정인 27일에는 세계적인 항공박람회인 '에어로마트 나고야 2023' 행사에 참가하는 경남도관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힘쓰는 도내 참가기업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장재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 노벨상 수상자들과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차관 주재로 9월 24일 오전 9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노벨상 수상자 3명과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요아힘 프랑크 쾰름비야대 교수, 마이클레비트 스탠퍼드대 교수, 하르트무트 미헬 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이 참석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형 R&D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촉진 방안,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정착 방안, △미래세대 육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성경 차관은 간담회 이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노벨

상 수상자들과의 대화 서울 2023'에 참석하여 과학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전했다. 행사에는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과 정중들이 참석했으며, '미래 교육'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경 차관은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일상생활부터 세계 경제,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과학자들은 연구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갖고, 단순히 '가능한' 기술이 아닌, '올바른' 기술,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강릉시,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강릉시는 25일 2023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민정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오전 11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김학한 한국노총 강릉지역지부 의장, 김형의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최충봉 강릉시번영회 회장, 양영봉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하며, 2023년 사업 추진 보고와 함께 2024년 역점추진사업을 검토하고, 노동인권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연계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일자리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5060세대 취업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위원, 실무협의 위원 및 노사민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함께 성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역사회 위기에 따른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한 강연 등을 진행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릉을 만들

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성장해 나가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협약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경남의 새로운 대한민국

가장 한국적인 곳

경북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라로온 천리의 왕국 대가야

신라 천년의 수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주 석굴암

불교 건축의 정수

역사와 문화의 고장 김녕

경주 석굴암

경주 부석사 무량수전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경 새재

경남에 이르면 유서 깊은 명소가!

안동 임청각

경상북도 Gyeongbuk

사진 출처: 문화재청

대전시 공공기관 직원 2023년 하반기 통합채용



대전시는 2023년 하반기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

하반기 통합채용에는 대전도시공사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120명(일반직 62명, 공무직 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1차 필기시험은 공공기관에서 요청

한 과목에 대해 대전시가 주관해 통합 추진하고, 2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선발 예정 공공기관에서 각각 시행한다.

응시원서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2일 18시까지 접수한다. 응모방법은 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하면 되고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4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1차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채용 공공기관별로 일정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험과목, 응시 자격, 가산점 등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공정한 사항은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 공공기관(2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대전시 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지방기업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공경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2021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채용을 통해 많은 우수한 인재가 대전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북교육청, 경북 장애학생들 미래 프로그래머가 되는 꿈을 이룬다!

2023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값진 성과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개이호텔 경주에서 개최된 '2023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경북의 장애학생들이 6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2023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과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정보화 및 e스포츠 대회 행사로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지난 7월 12일 경북 지역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학생들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 13개 종목(정보경진대회 8명, e스포츠 9명)에 경북 대표로 출전해 △우수 2명 △장려 3명 △대여플레이 2명 7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보화대회 8개 종목 중 △인터네트 검색 부문에서 영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박다솔 △스마트 검색 부문에서 계림중학교 2학년 주성현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e스포츠 대회 6개 종목 중 △스위치볼링 부문에서 포항중학교 중학교 3학

년 김동형 학생이 우수상 △플러그이즈 부문에서 포항동부초등학교 4학년 강다은 학생이 우수상 △스키네스스포츠 육상 부문에서 안동진명학교 고등학교 2학년 이정원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정당당한 e스포츠 정신을 기리는 페어플레이상은 △모두의 마블 부문에 출전한 영천 포은초등학교 6학년 천민성, 최동욱 팀이 수상했다.

특히 페어플레이상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해 장애인식 개선과 팀원 간 협력과 공감을 배움으로써 교육적으로 의미가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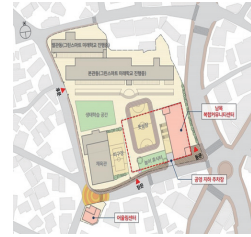
임종식 교육감은 "수상 여부를 떠나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구슬땀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내딛고 성장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남목초 내 2027년까지 남북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공모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동구 남목초등학교 내 남북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돼 예산 84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동구청과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남북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남목초 시제생사육으로 확보한 국비 72억 6,000만 원, 지방비 69억 원과 합치면 사업비는 모두 226억 원이 된다.

오는 2027년까지 건립되는 남북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남목초 내 기존 풋살장과 높이 휴식터 부지를 활용해 지상 2층 연면적 6,520㎡ 규모로 1층

에는 다목적 강당, 2층에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이 조성된다. 공영주차장도 지하 1~2층 각 75면의 주차시설로 조성된다.

본관 건물은 2026년 2월에 완공하고, 운동장 재구조화를 포함한 나머지 시설 공사는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부하고,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를 지역 생활의 중심으로 활용하고자 전국 최초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지역협의체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남목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학생과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하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병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이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선정으로 울산 학교시설 복합화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울산에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가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부산교육청, 교권 회복 위한 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교육활동 보호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 교권 회복을 위한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

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조치 조항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존중 및 지원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촉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활동 강화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교원 지원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교권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구축 ▲생활지도 연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 등을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167명이며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응답한 교원들을 상담하고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한 후, 교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교원의 처우와 회복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심리검사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촉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육청이 연계하고 지원한다. 또한 학교별 찾아가는 마음 건강 회복프로그램 희망학교 5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상담사를 파견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소진 교원들의 회복을 위하여 1박 2일 교원힐링캠프를 4기 운영하고, 추가 10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방영, 교육활동 보호 헬pline 발간,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및 교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도 실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출근길 청렴동행'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경북교육청은 25일 분청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교원 및 직무소진 교원들의 회복을 위하여 1박 2일 교원힐링캠프를 4기 운영하고, 추가 10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방영, 교육활동 보호 헬pline 발간,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및 교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도 실시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농수산기념품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 일간이다.

또한 기존에는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음식 및 용역 상품까지 확대했다. 상품권에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트콘)과 문화관광권은 포함되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에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김병갑 감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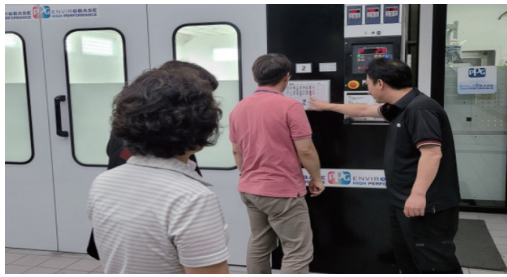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도민 행복

-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인천시 남동구, 폐수 배출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4곳 위반 적발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가을철을 맞아 세차장 등 지역 내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15일 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29개 사업장에는 환경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남동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 주요 폐수 배출업소인 세차장과 주요 대기·폐수 배출업소가 많은 고단동을 중심으로,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의뢰하고 기타 환경시설 운

영사함에 대한 중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환경관리인 법정 교육 미이수,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관내 주요 폐수 배출업소인 세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및 단속 강화를 환경오염 우려 해소와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부산시, 중국 방한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중국단체관광객 수용 대응 전략' 수립

부산시, 중국 방한단체관광 재개에 따라 중국 국경절 연휴 겨냥한 단체관광객 수용 대응 전략 마련

부산시가 중국 단체관광 성수기인 국경절 연휴(9.29.-10.6.)를 맞이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수용 대응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이해 급증이 예상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다.

시는 이번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시청에서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도시관광 수용대응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들과 중국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도시관광 수용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에이부산, 중국인단체관광객 유치전담 여행사, 로열캐리비안크루즈 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단체관광객 출입국 편의 개선 ▲단체관광객 소풍 편의 제공 ▲저차·저가 단체관광상품 근절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방안 ▲지역자원과 연계한 중국인 선호 콘텐츠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렇게 마련한 대응 전략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통한 부산관광산업의 고충절화'를 비롯으로 3대 분야 9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시는 중국단체관광 재개를 기화로 부산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번 전략을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분야는 ▲관광객 입출국 편의 제고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 ▲단체관광객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이다.

우선, 단체 관광객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 제주 단체 환승객을 대상으로 ▲무사중 입국허가제 개선 ▲'부산행' 입항 크루즈 선상출장심사 확대를 법무부에 건의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제도의 핵심은 사중연체다. 소풍의 비중이 높은 중국 단체관광객은 중국 직전 기념품 등 상품 구매 비율이 높아 출국 공항이 인접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인천, 김포공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중 입국허가제'를 입국공항과 무관하게 중국 단체관광객이 출국 공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무사중 입국허가제'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8시간 정도의 체류시간 중 4시간 이상이 대면 출입국 절차로 허비

전남도, 추석 앞두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2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663개 품목 원산지표시 단속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방·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 수입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반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민중 대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단속에서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성동구,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완료

유통기한 경과 여부 및 식품 보존 보관방법 적정성 여부,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서울 성동구가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모두 적합 판정을 받

았다고 밝혔다.

점검 및 수거 검사는 제수용품으로 많이 소비하는 떡류, 전, 튀김류 등의 조리식품을 판매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한과, 기름, 당면, 튀김가루 등 가공식품 등을 판매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판매·가공업소, 기타 식품 판매업소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생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및 식품 보존 보관 방법 적정성 여부,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했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아 전체 업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검사의 경우 구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 중 소형 유통업체의 추석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 3종에 대해 수거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검사를 완료한 수거식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성동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다.

구에서는 관내 식품판매업소 유통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뿐 아니라 하절기 다소비 식품, 쌀, 성수식품 등 특정 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관리제 등 구민을 위한 위생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 여러분 모두 무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체관광객들의 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부산 입항 크루즈 선상출장심사' 확대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체관광객의 편안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풍 편의 증진 및 ▲관광 안내체계 정비 ▲크루즈단체관광객 지정 식당 확대를 추진한다.

중국인이 널리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와 연계 사용이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제로페이 사용자 및 사물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표지의 외래어 표기 등 안내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숙박시설 및 식당에 대한 위생 수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5곳인 크루즈 단체관광객 전용 식당도 10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관광객 활성화 방안 ▲단체관광객 출입국 편의 개선 ▲단체관광객 소풍 편의 제공 ▲저차·저가 단체관광상품 근절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 방안 ▲지역자원과 연계한 중국인 선호 콘텐츠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렇게 마련한 대응 전략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통한 부산관광산업의 고충절화'를 비롯으로 3대 분야 9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시는 중국단체관광 재개를 기화로 부산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번 전략을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분야는 ▲관광객 입출국 편의 제고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 ▲단체관광객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이다.

우선, 단체 관광객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 제주 단체 환승객을 대상으로 ▲무사중 입국허가제 개선 ▲'부산행' 입항 크루즈 선상출장심사 확대를 법무부에 건의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제도의 핵심은 사중연체다. 소풍의 비중이 높은 중국 단체관광객은 중국 직전 기념품 등 상품 구매 비율이 높아 출국 공항이 인접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인천, 김포공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중 입국허가제'를 입국공항과 무관하게 중국 단체관광객이 출국 공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무사중 입국허가제'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8시간 정도의 체류시간 중 4시간 이상이 대면 출입국 절차로 허비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
2023. 10. 6(금) ~ 10. 9(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제31회 흥부제

2023. 10. 7(토) ~ 10. 9(월) · 사랑의광장 일원

2023 남원 文化財 夜行

문화재야행

광한청허부, 달나라궁전으로 초대

10.7 토 - 10.9 월 18:00-23:00

광한루원 · 요천월궁광장일대

흥부가 예술이야!



안전한 SMR 개발로
원전을 미니하게
한수 UP!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클린에너지로
한수 UP!

**에너지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